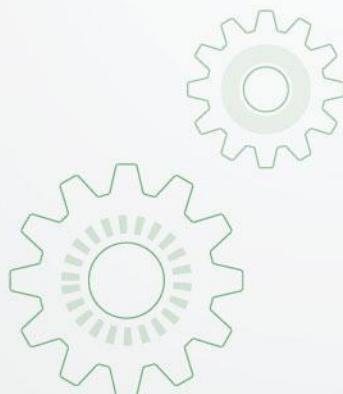


2025.09.26 ⚡⚡⚡⚡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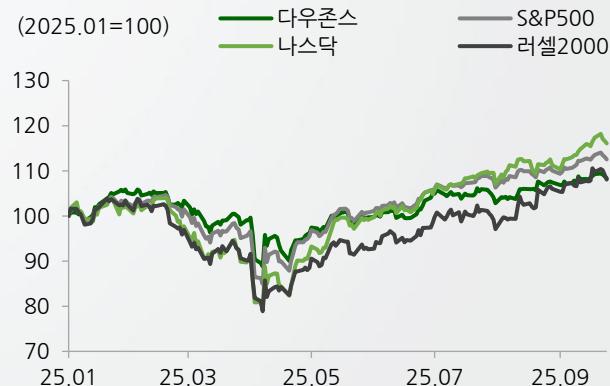
신영 Weekly Global Recap

- 다시 오르는 금리와 내려가려는 증시
- [추가 금리 인하] 금리 인하 시점 고민은 현재진행형
- [연방정부 셧다운?] 또 다시 트럼프 정부
- [국가 자본주의] 정부 주주 모델의 부활

주식전략 이상연
02-2004-9045
lee.sang-yeon@shinyoung.com



미국 증시 추이



[주간 브리핑] Global Market Weekly Wrap-up (2025.09.22~25)

다시 오르는 금리와 내려가려는 증시

- 미국 증시는 파월 의장의 증시 고평가 발언과 엔비디아의 오픈AI 1,000억 달러 투자 현실화 의문 속 약세
-마이크론 4분기 매출 \$113억으로 예상치(\$111.5억) 상회했음에도 불구하고 차익실현에 주가 약세
-'오라클-엔비디아-오픈AI'간의 상호 투자가 이어지면서 순환거래(money shuffle) 논란
- 유럽 증시는 NATO의 러시아의 에스토니아 영공 침범에 대한 강경한 태도 속 군사적 긴장감 고조되며 하락 마감
- 미국채 금리는 연준의 매파적 발언 및 견조한 경제 지표 속 추가 금리 인하 기대 약화되며 상승세 지속
-2분기 GDP 성장을 확정치 3.8%로 잠정치(3.3%)보다 상향 조정되며 2년 만에 최대 성장을 기록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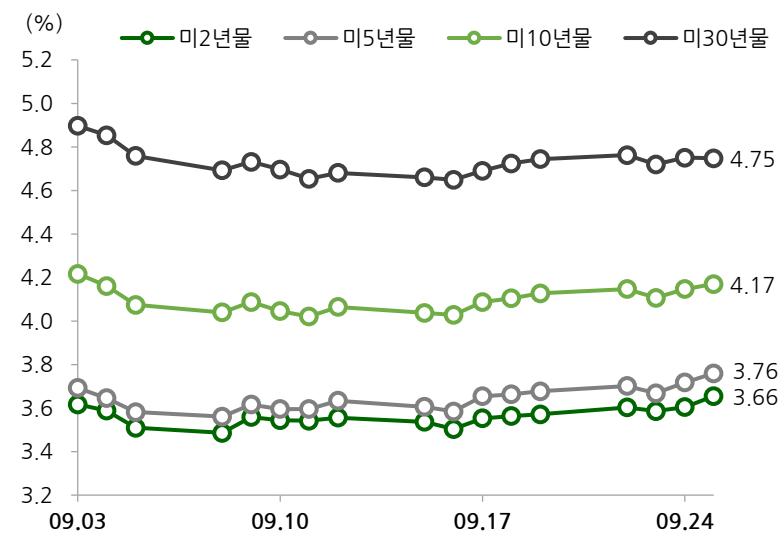
글로벌 시장 데이터 (2025.09.25 기준)

	종가	WTD	MTD	YTD
전세계	973.51	-0.58	2.31	15.71
DM	4,252.35	-0.63	1.79	14.69
EM	1,343.82	-0.15	6.78	24.95
S&P500	6,604.72	-0.41	2.24	12.29
나스닥	22,384.70	-0.38	4.33	15.92
STOXX50	5,444.89	-0.22	1.74	11.21
TOPIX	3,185.35	0.84	3.58	14.38
CSI300	4,593.49	2.12	2.15	16.74
KOSPI	3,471.11	0.28	8.95	44.66
달러인덱스	98.47	1.12	0.70	-10.02
원/달러 환율	1,409.30	20.30	19.50	-63.00
미국채 10년물	4.17	0.07	-0.06	-0.40
독일국채 10년물	2.77	0.05	0.05	0.41
영국국채 10년물	4.76	0.08	0.03	0.19

주) 단위: 주가지수(pt, %), 달러인덱스(pt), 원/달러 환율(원), 채권(%), bp

자료 : Bloomberg, 신영증권 리서치센터

미국 국채금리 추이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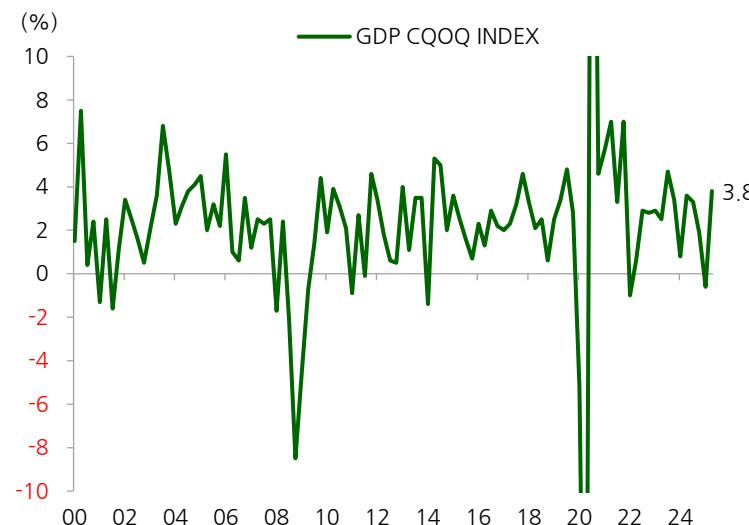
자료 : Bloomberg, 신영증권 리서치센터

[추가 금리 인하] 금리 인하 시점 고민은 현재진행형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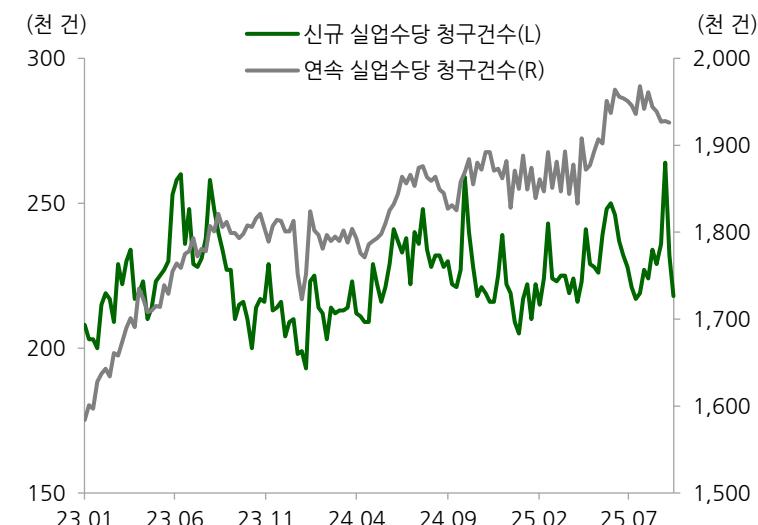
아직은 세부 시점까지 확신할 수 없어

- 23일 제롬 파월 의장이 로드아일랜드주 상공회의소에서 연설을 진행
- 9월 FOMC 연설과 유사한 스탠스 → 단기로 인플레이션은 상방 리스크, 고용은 하방 리스크에 직면해 있는 상황
 - “금리를 너무 공격적으로 인하하면 인플레이션을 억제할 수 없어, 인플레이션 2%를 위해 정책 방향을 전환해야 할 수도”
 - “또한, 긴축 정책을 너무 오랫동안 유지하면 고용 시장이 불필요하게 위축될 수 있다”
- 파월 의장이 금융 안정 리스크가 높아지는 시기는 아니라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시장은 시장 고평가 발언에 주목
 - “예를 들어 주식 시장은 상당히 고평가 (fairly highly valued)되어 있는 것은 사실이다”
- 미국 2분기 GDP 성장을 확정치 3.8%로 잠정치(3.3%)보다 상향 조정 및 신규실업수당 청구건수 2주 연속 예상치 하회

미국 분기별 GDP(연율화 기준) 추이



주간 실업수당 청구건수 추이



자료 : Bloomberg, 신영증권 리서치센터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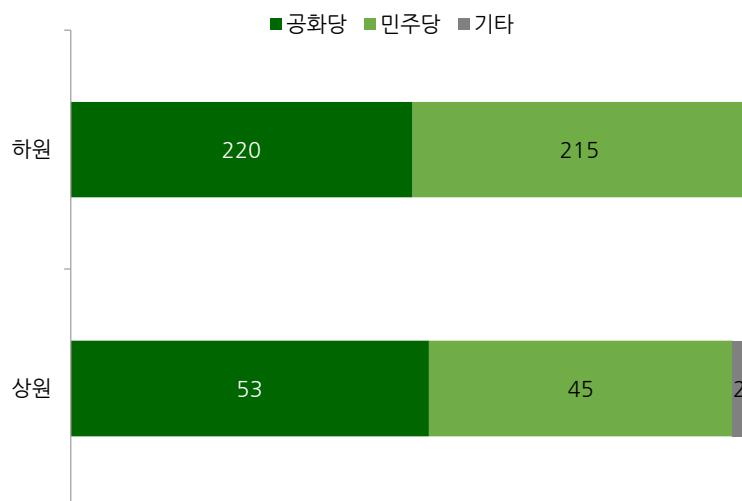
자료 : Bloomberg, 신영증권 리서치센터

[연방정부 셧다운?] 또 다시 트럼프 정부

공화당이 상원 과반을 차지하고 있으나 여전히 민주당의 협조는 필요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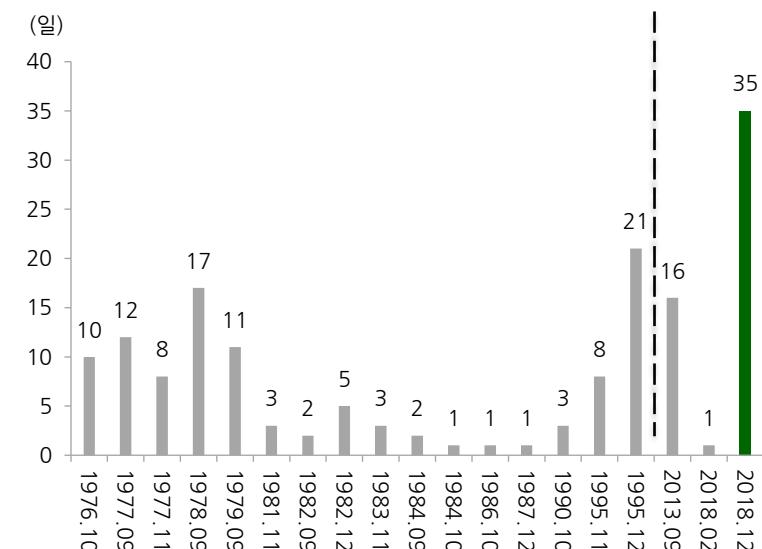
- 미국 연방정부 회계연도는 매년 10월 1일~9월 30일 → 이번달 말까지 내년 예산안을 처리하지 못할 경우 연방정부 셧다운
- 19일 7주 간의 임시 예산안이 하원을 통과(찬성 217표 vs. 반대 212표)했으나 상원에서 부결 (찬성 44표 vs. 반대 48표)되면서 셧다운 가능성이 높아진 상황, 미국 연방 의회는 22일~26일 휴회 중
 - 민주당 의원 1명을 제외한 전원 반대 + 공화당 의원 2명 반대 및 8명 투표 불참(통과를 위해서는 찬성 60표 필요)
 - 민주당은 연말에 종료되는 건강보험개혁법(ACA) 보험료 추가 보조금 지급 연장 및 메디케이드 예산 복원 주장
- 공화당 하원 지도부는 예산안 마감 시한인 9월 30일까지 워싱턴에 복귀하지 말라고 지시 및 29일과 30일 표결 일정 취소
- 미국 연방정부 셧다운은 2000년대 이후 자주 발생하는 이벤트는 아니나 트럼프 1기 당시 최장 셧다운 일수 35일을 기록

미국 의회 정당별 구성



자료 : 미국 상원, 미국 하원, 신영증권 리서치 센터

1976년 이후 미국 연방정부 셧다운: 트럼프 1기가 최장 기간



자료 : Congressional Research Service, 신영증권 리서치센터

[국가 자본주의] 정부 주주 모델의 부활

정부도 주주가 될 수 있다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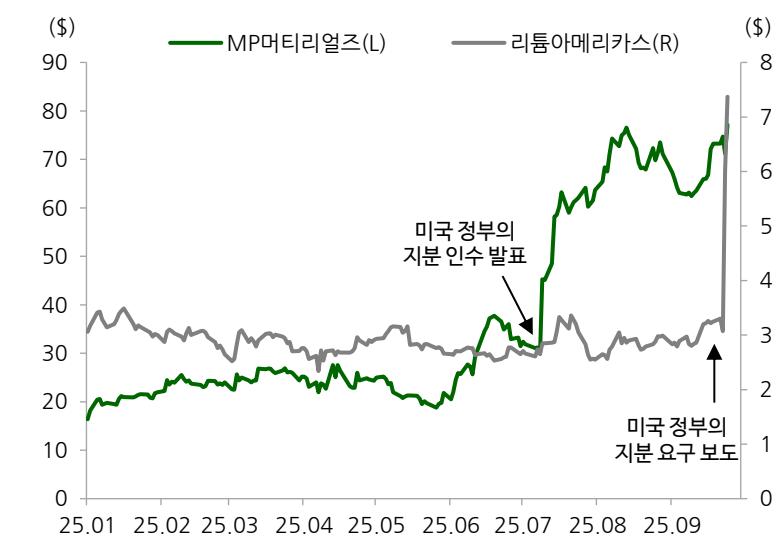
-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 이후 국익에 중요하다고 판단되는 민간 기업 지분을 인수하는 케이스가 증가 중
 - US스틸(2025.06): 일본제철의 인수를 허락하며 황금주 획득 → 일리노이주 공장 중단 철회에 개입한 것으로 추정
 - MP머티리얼즈(2025.07): 우선주 15%를 \$4억에 인수
 - 인텔(2025.08): CHIPS Act에 따른 보조금 지급의 대가로 10% 지분(\$110억) 확보
- 과거 미국 정부가 민간기업의 지분을 보유했던 사례가 없는 것은 아니나 보유 목적과 경제 환경에 큰 차이 존재
 - 2008 금융위기 당시 금융 시스템 안정화 및 자동차 산업 보호를 위해 씨티그룹, BoA, GM, 크라이슬러의 지분을 매입
- 네바다주 태거패스 프로젝트를 위한 대출 조건 재협상 과정에서 캐나다 광산 채굴업체 리튬 아메리카스의 지분을 요구
 - 최대 10%의 지분까지 고려하고 있으며 해외 기업을 대상으로 지분을 요구하는 것은 최초 케이스

인텔 주주 구성비중

순위	보유자명	보유 비중(%)
1	블랙록	8.39
2	Vanguard Group	8.3
3	미국 정부(상무부)	5.9
4	State Street	4.38
5	UBS	2.32
6	Geode Capital Management	2.1
7	PRIMECAP Management Company	1.73
8	Capital Group Companies	1.56
9	Norges Bank	1.52
10	Morgan Stanley	1.29

자료 : Bloomberg, 신영증권리서치센터

회토류 관련 업체 주가 추이



자료 : Bloomberg, 신영증권리서치센터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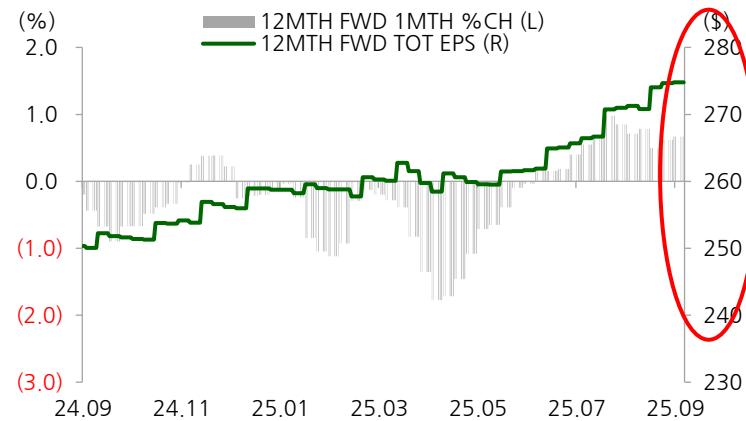
[Appendix] Global Stock Market : Valuation & Earnings

글로벌 주식시장 주요 데이터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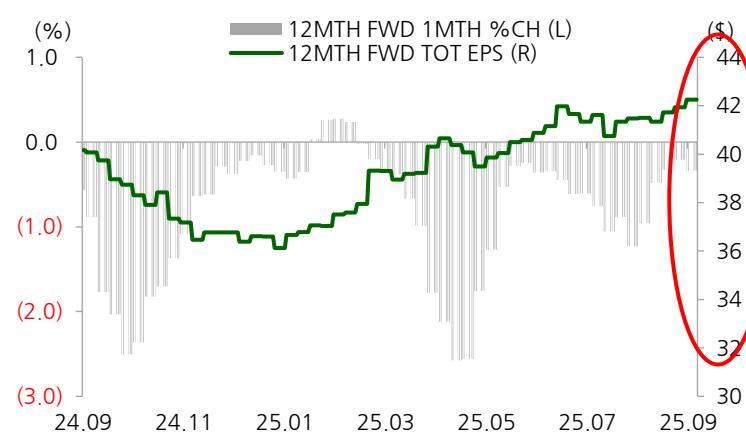
	(USD bn)	% Chg.		Revision		12MF Valuation & Earnings			
		Mkt cap.	4W	YTD	1m % chg.	P/E	P/B	ROE	Growth
DM	79,434	2.31	15.36	0.43	20.28	3.41	16.84	11.40	1.72
- US	57,561	2.54	13.08	0.67	22.98	4.80	20.89	13.17	1.22
- EU	7,793	1.24	23.62	(0.34)	14.78	1.90	12.85	9.63	3.29
- JAPAN	4,376	3.61	12.58	0.57	16.08	1.56	9.72	6.65	2.34
- UK	2,910	(0.20)	12.90	(0.33)	12.97	1.96	15.12	8.75	3.56
- France	2,115	0.98	6.07	(0.26)	14.91	1.83	12.29	12.27	3.41
- Canada	2,591	4.60	19.87	1.10	16.95	2.24	13.20	9.35	2.54
- Switzerland	1,943	(1.86)	3.75	(0.11)	17.49	3.35	19.13	9.07	3.06
- Germany	1,878	(2.36)	13.92	(0.45)	14.52	1.68	11.57	10.78	2.94
- Australia	1,326	(3.15)	4.02	(0.59)	20.09	2.41	12.01	2.61	3.33
- Netherlands	887	9.09	13.51	(0.46)	17.68	2.83	16.00	8.35	2.11
- Sweden	634	0.22	10.07	(0.23)	18.80	2.84	15.10	7.96	2.81
- HK	400	(0.79)	25.16	(0.31)	14.53	1.13	7.79	8.34	3.73
- Spain	691	1.63	37.11	0.55	12.21	1.63	13.36	4.18	4.23
- Denmark	382	0.64	(25.66)	(2.81)	15.04	2.82	18.75	4.48	3.11
- Italy	518	(0.08)	24.47	(0.43)	12.48	1.49	11.93	9.56	5.15
- Finland	158	2.23	17.68	0.38	17.33	2.06	11.91	15.24	3.85
- Singapore	355	1.53	21.67	0.49	16.07	1.91	11.89	6.18	3.92
- Norway	117	1.63	13.42	(0.19)	12.48	1.83	14.68	3.82	5.40
- Israel	199	0.12	16.42	0.96	12.39	2.24	18.04	9.12	2.17
EM	9,585	6.52	25.70	(0.52)	13.90	1.84	13.24	12.62	2.64
- China	2,934	7.22	36.08	(2.14)	13.41	1.56	11.60	10.60	2.10
- Korea	1,056	12.61	49.36	1.19	11.15	1.16	10.39	18.48	1.85
- Taiwan	1,857	8.72	16.86	0.36	17.95	3.11	17.33	15.06	2.61
- India	1,502	1.68	4.11	(0.02)	22.54	3.36	14.91	14.47	1.38
- Brazil	406	5.41	18.44	(0.16)	8.74	1.52	17.37	4.75	6.09
- South Africa	327	6.95	37.39	0.07	10.60	1.88	17.72	21.70	3.72
- Russia	-	-	-	-	-	-	-	-	-
- Saudi Arabia	287	7.15	(1.49)	0.50	14.00	1.85	13.21	8.64	4.59
- Thailands	106	1.31	(6.10)	(0.85)	15.73	1.58	10.04	6.22	3.71
- Mexico	191	5.88	24.73	(0.48)	12.78	2.25	17.62	8.63	4.35
- Malaysia	114	0.40	(3.98)	(0.74)	13.90	1.38	9.96	6.15	4.34
- Indonesia	94	(0.80)	(5.09)	(0.72)	11.45	1.92	16.79	5.20	5.60
- Philippines	39	(2.76)	(1.77)	(0.25)	10.21	1.48	14.45	9.21	3.37
- Poland	98	(1.33)	28.90	(0.89)	9.42	1.33	14.16	9.70	5.07
- U.A.E	141	(4.49)	16.57	(0.36)	9.75	1.68	17.25	8.71	4.93
- Turkey	45	2.29	19.94	(0.14)	5.44	0.85	15.57	58.15	4.27
- Hungary	27	(5.23)	19.99	0.50	6.56	1.03	15.64	3.19	5.18
- Greece	55	2.05	75.31	1.46	8.95	1.23	13.78	6.66	5.73

자료 : LSEG, 신영증권 리서치센터

미국 주식 시장 데이터



유럽 주식 시장 데이터



자료 : LSEG, 신영증권 리서치센터

Compliance Notice

이 조사자료는 고객의 투자에 참고가 될 수 있는 각종 정보제공을 목적으로 제작되었습니다. 이 조사자료는 당사의 리서치센터가 신뢰할 수 있는 자료 및 정보로부터 얻어진 것이나, 당사가 그 정확성이 나 완전성을 보장할 수 없으므로 투자자 자신의 판단과 책임하에 종목 선택이나 투자시기에 대한 최종 결정을 하시기 바랍니다. 따라서 이 조사자료는 어떠한 경우에도 고객의 증권투자 결과에 대한 법적 책임소재의 증빙자료로 사용될 수 없습니다. 이 조사자료의 지적재산권은 당사에 있으므로 당사의 허락없이 무단 복제 및 배포 할 수 없습니다.